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해 놓고도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도 모르는 자가 자연사했다. 정권 탈취를 위해 그림을 거역하고 반성과 사과의 한 마디 말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민낯으로 죽어 버렸다. 고대의 현철(賢哲)은 말했다. 죽음에 이른 인간은 반드시 착한 말 한마디는 하고 간다고. 그러나 가장 야만적인 이 학살자 전두환은 죽음에 임해서도 끝내 착한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저승으로 가 버렸다.

그래도 '한겨레신문'과 '광주일보' 등 몇 개의 언론 기관이 있었음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런 언론에서 '학살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5월 관계자가 사울했다면, 반드시 지역감정이니 진영 논리니 호들갑 떨면서 얼마나 지독한 욕설로 우리를 매도했을 것인가. 보수 언론의 발악을 막아 준 진보 신문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악독한 학살자의 집권 기간에 '정치는 잘 했다'라고 역사를 왜곡한 정치 지도자라면, 전두환 사망 후 몇몇 신분이 보여 준 그 흑독한 권력정치의 실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볼기를 권한다.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공정한 세상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학살자는 죽어도 학살의 역사는 살아 있다

떠들며 다니고 있으니 이 나라 앞으로의 역사가 참으로 두렵기만 하다.

1980년 5월, 우리 광주 시민들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학살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렇게 많은 목격자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아니 당시 계엄군의 조준 사격이 자위권의 발동이라거나 정당방위의 발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60만 군대가 38선을 지키며 북한군의 침입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300명의 무장 북한군이 넘어와 5월의 광주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광주의 진실을 묻히게끔 하는데, 그런 거짓말에 동조하면서 민주화운동을 민중 폭동으로 매도한다면, 하늘이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아는가.

우리 시대의 민중 시인이자 전사(戰士) 시인이었던 김남주의 시 '학살 1, 2'를 읽어 보자. "... 80년 오월의 어느 날/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 이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는가/ 이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는가/ ...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자와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은 집이 없었고/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맡아 올려 얼굴을 가려 버렸다/ 밤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뒀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렇게 처참하지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

하지 못했으리."

피를 토하는 김남주의 시는 잊혀만 가는 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 준다. 그는 광주 감옥에서 징역을 살면서 뒤에 들어온 5·18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두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인데도 두려움 없이 그런 시를 읊을 수 있었던, 용감하고 투쟁적인 시인이었다.

전두환의 시체가 화장되어 묻힐 곳이 없어 집의 방으로 들어온 직후, 진보 신문들은 또 사실을 통해 독재자 오 학살자인 전두환의 악행을 폭로하였다. '학살자 전두환'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생전의 전두환은 권력욕으로 가득한 잔인한 독재자였다"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으로 남겼다.

우리는 그런 잔인한 독재자의 권력정치가 숨을 못 쉬며 살아왔지만, 죽어 간 민주투사들을 생각하면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며 목숨을 이어 왔다. 우리보다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권력에서 내려온 뒤에도 한 마디의 사과라도 듣기를 원했지만, 그는 끝내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 뻔뻔스럽게 자연사하고 말았다. 대신 사과한다는 그의 부인 또한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과'로 우리 모든 국민을 우롱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희생자들의 억울 함보다 더 억울한 일은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이 사과 한 마디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점이다. 죽어서도 더 큰 억울함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전두환의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유족들로부터라도 진정한 사과를 받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싸워야 한다.

꿈꾸는 2040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대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혼돈 그 자체다. 연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에 후보들 진영은 일희일비하지만 앞서는 쪽도 뒤지는 쪽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시기적으로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후보층의 비율이 높은 것도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판세 예측이 쉽지 않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돌발 변수로 인해 매순간 긴장이다.

옛그제 지역 시민단체 중 한 곳으로부터 워크숍에서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제는 '내년 대선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역할'이었다. 선거는 관점과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평가가 다르기에 결코 쉬운 강의는 아니었다. 역시나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강사님은 000 후보를 좋아하느냐, 특정 정당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등 질문들이 오갔다.

요지는 이렇다. 현재 판세로 본다면 여당의 승리가 쉽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분열되고 자중지란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선거 구도가 여당 대 야당의 다자

'한풀이' 선거 제도 이젠 개선해야

구도로 치러졌을 때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자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선거라는 걸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여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야권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 중심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대선 보다 안철수 후보의 주가가 높기 때문에 여당에서 승리하려면 안철수 후보를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끌어당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 자리를 제안하든지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하든지 해야 한다는 요지를 두고 마치 강사가 안철수 팬인 것처럼 질문이 오고 간 것이다. 보통 대선은 2012년(51.55% 대 48.02% 박근혜 후보 당선)의 경우처럼 2~3%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3의 후보는 당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지난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패심으로 내부 분란이 일었고 자중지란의 조짐이 보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자와 당 대표가 연인들이 입는 커플 후드까지 맞춰 입고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라면 그리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모습이랄 걸 얘기했다.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음에 얘기했다. 진보는 작은 차이에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보수는 이익 공동체라서 내부 분열로 인해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패배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기민

하게 만나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선거는 제도상 양극단인 이분법적인 정치 형태로 흐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재의 여당보다는 야당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을 얘기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힘 있을 때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제도 개선에 앞장서지 않는 것은 마치 이슬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선거에 있어 정쟁은 보이지 않고 묻지 마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만 메아리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선거를 치르는 대선이 어쩌다 이렇게 한풀이 정치로 흘러가는지를 이야기했다. 정권을 잃은 상대는 5년 동안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정권을 잡은 상대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오직 진영 간 한풀이 하는 모양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나 미래 비전이 실종되고 극단의 정치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87년 이후 거대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잡지만 이는 어느 한쪽의 실책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구조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게을리 한다면 이젠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기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가족관이 필요하다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장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미 지난 2018년 0.98을 기록하여 1명 미만으로 하락한 데 이어 더 떨어진 것이다. 전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15로 서울 0.64, 부산 0.75, 대구 0.81 등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의제로 행정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조사와 변화하는 인구·가족 구성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망연한 생애 과업으로 여기지 않으며, 설령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이를 미루거나 기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초저출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 경향과 비혼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인구 동향 조

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세, 여성 30세로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혼인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혼외 출산율이 2.3%로 OECD 최저이며,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만혼 경향과 비혼의 증가는 출산율 하락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더 중요한 요인은 가족 규범의 약화, 특히 젊은 층의 의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이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결혼·동거·출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줄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고 있다. 특히 결혼의 향에 관한 인식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미혼 남성은 40.8%인데 반해, 미혼 여성은 22.4%에 불과하다.

2020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차이는 더욱 극적이다. 30대 미혼 남녀 각 500명에게 결혼 의향을 묻은 결과 남성의 18.8%, 여성의 30.3%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는데 그 이유로 남성은 절반 가까이 현실적으로 결혼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

(25.3%)하거나 '양성 불평등한 문화 때문' (24.7%)이라고 답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출산의 근인(近因)이 만혼·비혼이라면 그 배경에는 전통적인 결혼·가족관과 실천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이 가사·돌봄을 전담하는 결혼·가족 제도가 청년 남성에게는 '부담'을, 청년 여성에게는 '불만'을 유발하면서 결혼을 기피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이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그 어느 때보다 중시하는 시대에 결혼의 비용과 기회비용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면, 결혼 축하금과 출산 지원금이 저출산 경향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로 가족을 유연하게 정의하고, 그 자녀를 차별하지 않는 국가들 로 눈을 돌려보자. 스웨덴은 1988년에 동거인법을, 프랑스는 1999년에 시민 연대 협약을 도입했다. 이 법의 핵심은 비혼 동거 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비혼 동거 커플의 임신·출산·양육 시 법률혼 관계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나라는 혼외 출산율이 높다. 합계 출산율은 한국의 두배이다. 2018년 기준 프랑스와 스웨덴의 혼외 출산율은 각각 60.4%, 54.5%, 합계 출산율은 1.84, 1.76이다.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부터 탈피해야 한다.

社說

거짓 증언한 계엄군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5·18 당시 계엄군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열린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다닌다 적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는 기록에 의해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항공 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중정작전(도청진입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하였음"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송 씨가 1989년 다른 항공대장들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적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을 한 점, 1995년 5·18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들어 송 씨가 책임 회피를 위해 고의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씨는 그러나 '법정 증언 당시에 광주에 갔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 오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헬기 사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는 송 씨가 헬기 사격과 (유혈 진압)작전 개입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고의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 명령장 등 5월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계엄군에 대한 첫 징역형 구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구형이 계엄군에 대한 첫 처벌로 이어져 이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전두환은 죽었지만 진상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오미크론 '지역 침투'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된다. 신규 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까지 겹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일시 중단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여섯 명,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은 여덟 명으로 제한된다. 또 노래연습장·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 패스가 식당·카페·학원·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처음 5000명을 돌파한 이후 다섯 연속

50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병상 가동 여력이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12명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에서도 지난 3일 91명, 4일 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해외 입국 확진자 중 일부를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보고 긴급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일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침투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추가 접촉(부스터 샷)에 속도를 내야겠다. 시민들 역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 모임 등을 자제함으로써, 지난 2년간의 인내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브로치는 대표적인 의복용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천을 몸에 두를 때 이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브로치는 세공이 발달한 비잔틴 시대부터 제작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당초에는 귀금속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나무나 가죽 등 브로치의 재료도 다양해졌다.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에는 패션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브로치를 착용한다.

브로치는 장식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미국 최

브로치

브라이트는 브로치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재임 시절 사망 후세인이 자신을 '뱀'이라고 호칭하자, 뱀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방송에 출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방한 당시에는 햇살 형상의 브로치를 달아 '햇빛정책'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얼마 전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브로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영입 1호인 조동연 서경대 군사와 교수를 향해 '예쁜 브로치'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 김 위원장은 여

당과 여성계의 비판이 일자 '브로치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결국 조 교수는 3일 만에 사생활 논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물론 검증에 실패한 여당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특정 분야 전문가를 '액세서리'로 규정한 김 위원장 발언은 성인지 감수성과는 사뭇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브로치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징도 함의한다. 세

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나비 브로치', 위안부 의적절하게 활용한 정치

할머니들을 위한 '희망

나비 브로치', 제주 4·3 희생자를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 등이 그러한 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또 다시 거리 두기가 강화됐다. 초겨울임에도 한겨울 한파가 닥친 듯 모든 게 위축됐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메시지가 중요한 시기다. '예쁜 브로치' 같은 폼페이와 궤변은 그 자신이 '정치판 브로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닐까.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21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